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탐구 : 네트워크 특성을 중심으로*

이창호** · 이경상***

초 록

최근 사이버불링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청소년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이뤄지는 사이버불링 피해 및 가해 실태는 거의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이버불링의 피해/가해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소셜미디어의 네트워크특성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아울러,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연구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이버불링 피해를 더 많이 당하고 가해경험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가운데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 결속형 매체의 이용정도가 사이버불링 피해/가해 경험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블로그나 트위터 등 교량형 매체의 이용은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에는 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속형 매체에서 사이버불링이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이버불링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 사이버불링에 대한 처벌강화, 사이버불링에 대한 구체적 실태조사 등을 제안했다.

주제어 : 사이버불링, 소셜미디어, SNS, 네트워크특성

* 본 논문은 2012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인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교신저자, ifsc334@nypi.re.kr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우리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지형을 바꿔놓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심 있는 정보를 얻기도 하고 이를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소셜미디어 상에 자신의 생각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개인의 일상을 털어놓음으로써 기존의 혹은 새로운 친구들과의 관계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할 수도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이 언제 어디서든지 정치적 의견을 게재하고 정치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김성태, 김여진, 최홍규, 김형지, 2011). 이처럼 소셜미디어는 개인들 간의 관계망 확장에 용이한 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사람 중심으로 조직된다는 면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나 관심사에 의해 형성된 초기의 웹사이트들과 다르다(Boyd & Ellison, 2008). 즉 소셜미디어는 개인적 상호작용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개인이 커뮤니티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인 트위터는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대통령 선거캠페인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트위터는 오프라 윈프리, 샤길 오닐 등 유명인들의 사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특히 2009년 5월 김연아 선수가 트위터를 이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수가 늘었고 이후 소설가 이외수와 방송작가 김수현 등 유명인들의 트위터 개설이 이어지면서 트위터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이광수, 조연아, 김성일, 2009). 한국의 트위터 인기순위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스포츠 스타, 가수, 정치인 등 유명인들의 트위터가 상위에 랭크돼 있을 정도다(안재민, 2009). 또한 트위터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아이폰 등 스마트 폰의 도입과 확산으로 트위터 이용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아이폰 사용자 3명 중 2명 꼴로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이광수 외, 2009).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 이용자수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2012년 3월 가입자수가 4,2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동아일보, 2012).

이처럼 가파르게 성장한 소셜미디어는 사회자본을 증진하기도 하고(고상민, 황보환, 지용구, 2010; 심홍진, 황유선, 2010; 최영, 박성현, 2011; Valenzuela, Park & Kee, 2009)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는(송경재, 2011; Kushin & Yamamoto, 2010; Vitak et al., 2011; Zuniga, Jung & Valenzuela, 2012)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하지만 프라

이버시문제(Debatin, Lovejoy, Horn & Hughes, 2009)나 허위정보의 확산(이창호, 김은국, 최영재, 2012), 관계의 피상성이나 중독(이창호, 성윤숙, 정낙원, 2012) 등 그 역기능도 만만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청소년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등교거부, 학업중단, 자살 등의 주요 원인으로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이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다(서울신문, 2012; 천지일보, 2012).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 8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한 여고생은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을 통해 십여명의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등 집단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우리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천지일보, 2012). 또한 아이돌그룹 티아라의 왕따사건을 모방해 초등학교들 사이에 일명 '티아라놀이'가 유행하기도 했다. 이 놀이는 친구 한명을 왕따로 지목하고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이 친구를 괴롭히는 행위이다(천지일보, 2012). 인터넷을 넘어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 활용범위가 확산됨에 따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불링이 심해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은 오프라인에서의 괴롭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전파력이 강해 상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이인태, 2012; Parris, Varjas, Meyers & Cutts, 2012). 게다가 언제 어디서든 이용가능하고 시공간적 제약을 훨씬 덜 받는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게 되면서,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의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우리사회의 중요한 청소년문제로 떠오른 사이버불링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임상수(2011)의 지적대로 아직까지 사이버불링에 관한 전국적 조사가 국내에서 이뤄진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의 실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 피해/가해경험의 실태를 살펴보고, 소셜미디어의 네트워크적 특성이 사이버불링 피해/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사이버불링의 개념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은 이메일, 채팅룸, 소셜네트워킹사이트(SNS) 등을 이용하여 동료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일컫는다(Patchin & Hinduja, 2011). 즉 사이버상에서 문자, 사진, 메시지 등을 통해 누군가에 대해 놀리거나 욕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사이버불링의 경우 디지털 기기를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유형은 크게 단문문자, 사진 혹은 동영상, 보이스메일, 이메일, 채팅방,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SNS 사이트, 온라인게임의 상호작용공간 등을 통한 행위유형으로 분류된다(임상수, 2011).

사이버불링은 면대면 상황이 아닌 익명성을 전제로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면에서 전통적인 괴롭힘과 다르다.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사이버공간을 통해서는 면전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을 익명성을 이용해서 말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불링은 물리적 공간에 규제받지 않고 일어난다는 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 있을 때 일어나는 전통적인 괴롭힘과 다르다. 사이버불링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고 사이버공간에 보다 오래 남기 때문에 그 부정적 효과가 매우 크다(Parris et al., 2012).

이러한 특성 때문에 SNS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집단 괴롭힘이 최근 심각한 청소년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학교 왕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학교폭력은 이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이버상의 괴롭힘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조희정, 2012).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위, 즉, 누군가에 대해 놀리거나 욕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지칭한다.

2. 사이버불링의 실태

국내의 경우 최근 사이버불링에 대한 연구가 막 시작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 대체로 2008년부터 사이버불링의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Dehue et al., 2008; Li, 2010; Patchin & Hinduja, 2011; Smith et al., 2008).

네덜란드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6% 가량의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누군가를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고, 22%의 학생들은 누군가에 의해 최소한 한차례는 인터넷을 통해 불링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Dehue et al., 2008). 성별로 봤을 때, 남학생들은 불링가해경험이, 여학생들은 불링피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또한 인터넷상의 불링은 전통적 불링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시말해, 물리적 공간에서 불링가해경험이 많을수록 인터넷을 통한 불링가해경험도 높았다. 또한 물리적 공간에서 불링피해를 많이 당할수록 인터넷 상에서도 불링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부모조사도 병행했는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사이버불링에 관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ehue et al., 2008).

영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전통적 불링과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불링 간에 관련성이 높았다(Smith et al., 2008). 또한 여학생들이 전통적 불링과 사이버불링의 피해를 남학생보다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불링과 다르게, 사이버불링은 학교 안보다는 학교 밖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Smith et al., 2008).

미국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의 응답자들은 지난 한달 동안 두 번 이상 사이버불링가해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Patchin & Hinduja, 2011). 반면, 전통적 불링에 가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1%였다. 이 연구에서도 전통적 불링과 사이버불링 간의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났다(Patchin & Hinduja, 2011).

캐나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사이버불링의 원인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재미와 가정문제를 꼽았다(Li, 2010). 즉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것은 학교나 가정에서 사이버불링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 사실을 교사나 상담원에게 알리겠느냐는 질문에 80% 가량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가 사이버불링을 멈추기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라고 말했다(Li, 2010).

이 같은 외국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사이버불링에 더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통적 불링과 사이버불링 간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전통적 불링경험이 사이버불링경험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실시한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12.3%가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즉 청소년 10명 중 1명 가량은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셈이다. 피해유형별로는 말로 하는 헐박이나 욕설(37.9%)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채팅,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통한 욕설과 비방(13.3%), 집단따돌림(13.3%)이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는 교실이 25.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화장실, 복도가 9.6%로 뒤를 이었다. 온라인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7.7%에 달했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익숙한 디지털 기기를 통한 따돌림은 학교폭력의 중요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그간 사이버폭력을 주제로 한 조사연구는 다수 진행되어 왔다(김경은, 윤희미, 2012; 김경은, 최은희, 2012; 김대권, 2006; 남재성, 장정현, 2011; 성동규, 김도희, 이윤석, 임성원, 2006; 유상미, 김미량, 2011), 하지만, 사이버불링을 주제로 한 조사연구는 최근 사이버불링의 실태를 부분적으로 파악한 논문 몇 편이 발표되었을 뿐(오은정, 2010; 이성대, 황순금, 염동문, 2013; 이인태, 2012) 전국적인 조사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다룬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오은정(2010)은 2010년 3월 경기도 지역에서 임의표집한 2개 중학교 5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인터넷, 이메일, 핸드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와 '인터넷, 이메일, 핸드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 괴롭힌 적이 있다'의 문항으로 사이버불링 피해, 가해 경험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4.1%, 가해경험이 4.7%로 나타났으며, 사이버불링피해경험은 여학생들에게서, 가해경험은 남학생들에게서 더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오은정, 2010). 경남 의령군 소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사이버불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209명의 학생

중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은 31.1%, 사이버불링피해경험은 25.8%로 나타났다(이성대 외, 2013). 이인태(2012)는 2011년 8월 경기도 지역에서 지역 및 도농간 분포를 고려하여 임의표집한 6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7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26.1%, 가해경험이 21.5%로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이인태, 2012).

하지만 국내에서 진행된 사이버불링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들은 일부 지역의 몇몇 학교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여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한국사회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사이버 불링이 발생한 원인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고 실태를 묘사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가해 경험의 실태가 성별, 교급별, 부모학력별, 부모 직업유무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소셜미디어의 활용과 사이버불링

앞서 논의한대로, 사이버불링 피해/가해의 원인에 대해 현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이버불링 가해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긴장과 좌절을 많이 겪는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불링을 더 많이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Patchin & Hinduja, 2011). 즉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거나 가족과의 불화 등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사이버공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남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한 연구결과에서도, 교우관계가 안 좋거나 학업스트레스가 심할수록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불링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따라서, 학생들의 좌절이나 분노를 통제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불링 피해와 관련해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Accordino & Accordino, 2011). 즉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가깝지 않을수록 사이버불링피해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앞의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피해/가해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피해/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비행이론 중 일상활동이론(Cohen & Felson, 1979; Cohen, Klugel & Land, 1981)을 통해 설명해 볼 수 있다.

Cohen과 Felson (1979)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에 따르면, 비행의 발생을 비행가해자의 특성에서만 찾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비행이 발생하려면 동기화된 가해자(motivated offender), 적합한 피해자(suitable target), 보호력의 부재(the absence of guardianship)와 같은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만 한다(Cohen & Felson, 1979). 즉 동기화된 가해자가 가해를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해에 적합한 피해자를 찾은 경우에 비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발전시켜 Cohen, Klugel and Land(1981)는 가해자와의 근접성(proximity), 비행대상의 매력성(attractiveness), 비행위험노출(exposure), 보호력 부재(the absence of guardianship) 이 네 가지를 비행발생요건으로 제시하였다. 즉 잠재적 피해자가 ① 동기화된 가해자와 근접해 있거나 ② 화려한 액세서리, 많은 현금, 고가의 물건 등을 지니고 있거나 ③ 집밖에서 밤늦게까지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개인의 일상생활패턴이 비행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④ 가해를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력이 없는 상황일 경우 비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이 논문의 관심사인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피해/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적용시켜보면, 경찰력 등 보호력이 있는 오프라인과는 달리 보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이버 상에서(보호력의 부재), 또한 매력적인 사이버 불링의 잠재적 피해자가(비행대상의 매력성)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 소셜미디어에 접속해 잠재적 가해자와 근접해 있는 상태에서(가해자와의 근접성) 사이버불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을 통한 소셜미디어 이용시간(비행위험에의 노출)이 길면 길수록 사이버불링 피해/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경험적 연구결과에서도 채팅룸이나 마이스페이스 같은 소셜네트워크를 많이 이용하고(Accordino & Accordino, 2011), 인터넷을 많이 이용할수록(Smith et al., 2008) 사이버불링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이론은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이뤄지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미디어플랫폼(위키백과 참조)이긴 하지만 개인간의 연결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가령, 누구와도 관계맺기가 가능한 트위터와 달리 페이스북에서는 친구요청을 승인해야만 그 친구와의 교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의 네트워크특성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모두 8가지 소셜미디어를 크게 교량형과 결속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¹⁾. 즉 블로그, 트위터, 팟캐스트, 유튜브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가능하고 관계맺기가 비교적 자유로우며 약한 유대에 기초해 있어 교량형 소셜미디어로 분류하였다. 또한 미니홈피, 미투데이, 페이스북, 카카오톡은 친구요청을 수락해야만 상대방과 교류가 가능한 매체다. 따라서, 이러한 매체는 친한 사람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집단내 결속을 두텁게 하는 강한 유대를 가지고 있어 결속형 소셜미디어로 묶었다.

앞서 논의했듯이, 마이스페이스²⁾와 같이 소셜미디어의 네트워크 특성이 집단내 결속을 다지는 성향일수록 소셜미디어 이용시간(비행위험에의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불링 피해/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결속형 소셜미디어에서 사이버불링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III.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국내의 경우 소셜미디어 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불링의 실태에 대한 대규모 전국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

1) 최영·박성현(2011)은 사회자본과 관련한 논쟁을 중심으로 트위터를 개방형 SNS로, 싸이월드를 폐쇄형 SNS로 구분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폐쇄형이란 용어보다 교량형/결속형이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2) 마이스페이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로 국내의 미니홈피처럼 자신만의 공간을 구성하여 글이나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다.

버블링 피해 및 가해경험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아울러 네트워크 특성별로 분류한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사이버불링 피해/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청소년 사이버불링 피해/가해경험의 실태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성별, 교급별, 부모 학력수준별, 부모 직업유무별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청소년 사이버불링 피해/가해경험의 실태의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네트워크특성별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은 사이버불링피해/가해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2년에 수행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과제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전국의 남녀 고등학생(1~3학년) 및 대학생(1~4학년)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의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즉 고등학생의 경우 전국을 16개 시도와 학교계열(일반계, 전문계)로 층화한 뒤 규모 비례확률표집법을 적용하여 조사대상학교수(88개교)를 결정하였다. 이후 한 학교당 한 등급씩 면접원이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경우는 전국 16개 시도별로 일반대/전문대 학생수를 고려하여 모두 76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전문대의 경우 각 학교당 24명, 일반대의 경우 48명을 성, 학년, 전공을 고려하여 추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11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활용하였다.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고등학생 2,574명, 대학생 2,302명 등 총 4,876명이다. 이 중 남학생이 2,496명으로 전체의 51.2%를 차지했다. 대학생의 경우 인문·사회전공이 33.1%, 이공·의학 34.0%, 예·체능 32.9% 등 전공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다.

표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배경	인원수	퍼센트
교급별	고등학생	2,574명	52.8%
	대학생	2,302명	47.2%
성별	남	2,496명	51.2%
	여	2,380명	48.8%
가족유형	양부모	4,276명	88.0%
	한부모	420명	8.6%
	조손가정	41명	.8%
	기타	122명	2.5%
지역 (고등학생의 경우)	대도시	1,115명	43.3%
	중·소도시	647명	25.1%
	읍·면지역	812명	31.5%
전공 (대학생의 경우)	인문·사회	763명	33.1%
	이공·의학	782명	34.0%
	예·체능	757명	32.9%

3. 주요 변인

1) 사이버불링변인

사이버불링변인은 사이버불링 피해와 가해경험으로 크게 구분해 측정했다. 먼저 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최근 1년간 소셜미디어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욕설을 들은 적이 있는지, 자신을 놀리는 글을 본 적이 있는지,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는지를 각각 질문했다³⁾. 각 질문에 있다고 답하면 1점을, 없다고 답하면 0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가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최근 1년간 소셜미디어 상에서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는지,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는지,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는지 각각 질문했고 각 질문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을 부여하

3) 질문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였다. 이에 따라 사이버불링변인은 크게 사이버불링피해와 사이버불링가해변인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문항의 값을 합쳐 변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3이다. 사이버불링피해변인의 평균값은 .46, 표준편차는 .76으로 나타났고 가해변인의 평균값은 .63, 표준편차는 .90으로 나타났다.

2) 배경변인

본 연구에 사용된 배경변인은 성(남학생/여학생), 교급(고등학생/대학생),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아버지/어머니)의 학력수준, 부모(아버지/어머니)의 직업여부 등이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0, 여성은 1을 부여하였고 교급의 경우 고등학생은 0, 대학생은 1로 코딩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매우 못산다 ~ 7=매우 잘산다). 부모학력의 경우 본래 7점 척도로 구성(1=학교안다님~7=대학원졸업)돼 있었는데 전문대이상과 고졸이하로 이분화 하여 리코딩하였다(전문대이상=1, 고졸이하=0). 부모직업의 경우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각각 코딩하였다.

3) 네트워크특성별 소셜미디어 이용시간

먼저, 이 연구가 정의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 상호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대로 블로그, 미니홈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모두 8가지가 소셜미디어의 범주에 포함됐다. 각각의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얼마나 해당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지로 측정했고 6점 척도로 구성돼 있다(0=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 5=2시간 이상 이용한다). 따라서, 교량형 소셜미디어이용시간은 블로그, 트위터, 팟캐스트, 유튜브 등 4가지 소셜미디어이용시간의 평균으로 측정하였고 결속형 소셜미디어이용시간은 미니홈피, 미투데이,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4가지 소셜미디어이용시간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교량형 소셜미디어이용시간의 평균은 .55, 표준편차는 .60, 결속형 소셜미디어이용시간의 평균은 1.42, 표준편차는 .86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의 실태

먼저,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 피해분포를 살펴본 결과, 그림 1에 나타난바와 같이 사이버불링피해를 당해본 적이 없는 학생은 전체의 68.1%로 나타났다. 즉 사이버불링피해를 한번이라도 겪어본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31.9%로 나타났다. 세 가지 피해유형 중 어느 한 가지를 경험한 응답자는 19.2%, 두 가지 유형을 경험한 응답자는 10.6%, 욕설, 놀림, 따돌림 등 세 가지 피해를 모두 당한 응답자는 2.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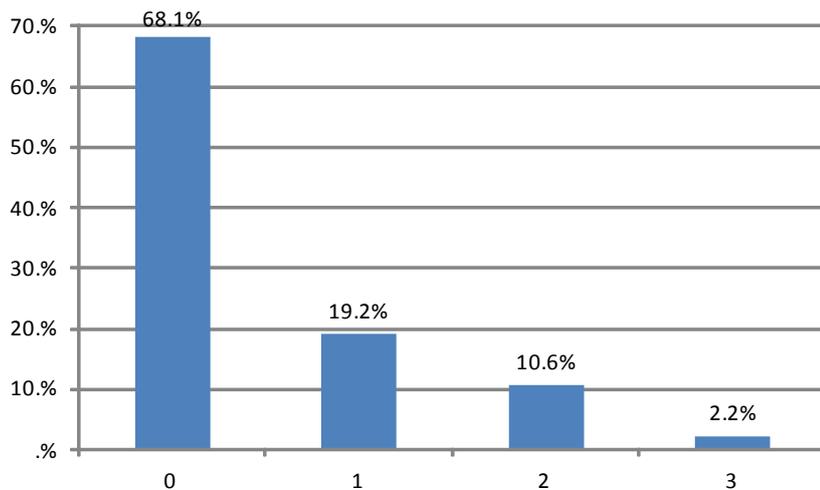


그림 1. 사이버불링피해척도분포

사이버불링가해분포를 살펴본 결과, 그림 2에서처럼 사이버불링을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는 청소년은 전체의 61.9%로 나타났고 38.1%의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든 사이버불링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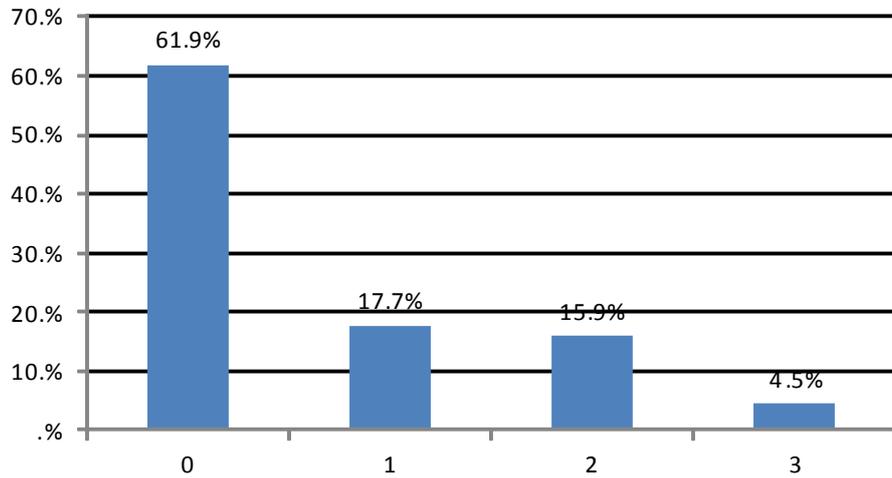


그림 2. 사이버불링가해척도분포

각 피해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24.9%가 소셜미디어상에서 누군가로부터 욕설을 들은 적이 있고, 18.1%가 소셜미디어상에서 놀리는 글을 본 적이 있으며, 3.8%는 소셜미디어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2 참고). 한편,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 가해실태를 살펴본 결과, 전체응답자의 38.1%가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이 어떤 방식으로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의 29.0%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고, 27.2%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으며, 6.8%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보다 가해경험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사이버불링 피해/가해 경험

사이버불링 문항		없다	있다	전체
피해	소셜미디어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대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75.1%	24.9%	100.0%
	소셜미디어 상에서 나를 놀리는 글을 본 적이 있다.	81.9%	18.1%	100.0%
	소셜미디어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96.2%	3.8%	100.0%
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다.	71.0%	29.0%	100.0%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다.	72.8%	27.2%	100.0%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다.	93.2%	6.8%	100.0%

성별, 교급별, 부모 학력수준별, 부모 직업유무별로 사이버불링 피해/가해 경험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사이버불링피해의 경우, 성별 차이만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는 더 많이 사이버불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됐다(표 3 참고).

표 3
배경변인에 따른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차이

		평균	표준편차	
교급	고등학생	.46	.74	F=.335
	대학생	.47	.79	
성	남	.56	.81	F=79.961***
	여	.36	.69	
아버지학력	전문대 이상	.46	.76	F=.339
	고졸 이하	.47	.78	
어머니학력	전문대 이상	.46	.75	F=.100
	고졸 이하	.46	.77	
아버지직업	유	.46	.76	F=.107
	무	.44	.74	
어머니직업	유	.47	.76	F=3.191
	무	.43	.74	

*** $p < .001$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의 경우, 교급별, 성별, 어머니 직업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표 4 참고). 즉 대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배경변인에 따른 사이버불링 가해경험 차이

		평균	표준편차	
교급	고등학생	.70	.93	F=31.76***
	대학생	.55	.86	
성	남	.70	.95	F=37.26***
	여	.54	.84	
아버지학력	전문대 이상	.61	.90	F=.376
	고졸 이하	.63	.90	
어머니학력	전문대 이상	.60	.89	F=.803
	고졸 이하	.63	.90	
아버지직업	유	.62	.90	F=.028
	무	.61	.89	
어머니직업	유	.65	.91	F=8.21**
	무	.56	.86	

** $p < .01$, *** $p < .001$

2. 네트워크 특성별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특성별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교급별, 가정경제수준, 부모학력, 부모직업,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을 통제변수로 하고 네트워크특성별(교량형/결속형)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변인들은 전체 변량의 28.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45.892$, $p < .001$, $R\text{-square}=.281$).

아래 표 5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의 경우, 남학생일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사이버불링피해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배경변인인 학력이나 직업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의 관심사인 독립변수의 경우에는 교량형 소셜미디어 이용시간과 결속형 소셜미디어 이용시간 모두 사이버불링피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교량형 소셜미디어 보다 결속형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길수록 사이버불링피해를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네트워크특성에 따른 소셜미디어 이용시간 등이 사이버불링 피해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상수)	.157	.076		
성별(여자=1)	-.134	.022	-.087***	
교급별 (대학생=1)	.025	.023	.016	
가정의 경제수준(1~7)	-.029	.010	-.040**	
부모학력	아버지학력 (전문대이상=1)	-.011	.026	-.007
	어머니학력 (전문대이상=1)	.030	.027	.019
부모직업	아버지직업 (있다=1)	.110	.065	.024
	어머니직업 (있다=1)	-.006	.023	-.003
사이버불링가해경험	.432	.012	.503***	
소셜미디어 이용시간	교량형 소셜미디어	.039	.019	.031*
	결속형 소셜미디어	.058	.015	.063***

R 제곱 = .281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네트워크특성에 따른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교급별, 가정경제수준, 부모학력, 부모직업,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을 통제변수로 하고 네트워크특성별(교량형/결속형)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회귀모형 역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변인들은 전체 변량의 27.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44.722, p<.001, R\text{-square}=.279$).

표 6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의 경우, 남학생일수록, 고등학생일수록 사이버불링가해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 부모학력, 부모직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불링피해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가해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경우에는 교량형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속형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사이버불링 가해경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075, p<.001$).

표 6

네트워크특성에 따른 소셜미디어 이용시간 등이 사이버불링 가해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상수)	.356	.089		
성별 (여자=1)	-.074	.025	-.041**	
교급별 (대학생=1)	-.197	.027	-.110***	
가정의 경제수준(1~7)	.012	.012	.015	
부모학력	아버지학력 (전문대이상=1)	.019	.030	.011
	어머니학력 (전문대이상=1)	-.038	.032	-.021
부모직업	아버지직업 (있다=1)	-.057	.076	-.011
	어머니직업 (있다=1)	.053	.027	.027
사이버불링피해경험	.587	.016	.504***	
소셜미디어	교량형 소셜미디어	-.039	.022	-.027
이용시간	결속형 소셜미디어	.080	.017	.075***
R 제곱 = .279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이 국내 청소년들 사이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특성에 따라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청소년 사이버불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전국조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최근 청소년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 현황을 대규모 조사를 통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 피해 및 가해경험을 조사하면서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먼저,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 피해와 가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나타났듯이, 10명 중 3명 가량은 사이버불링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4명 정도는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이버불링 피해를 더 많이 당하고 가해경험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흥미롭다. 이는 앞서 논의한 외국의 사례와 다른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남학생들이 사이버불링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사이버불링 가해와 피해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은 이성대 외(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비교적 건전한 사이버문화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보다 사이버불링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에 비해 아직 미성숙한 고등학생들이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에 더 취약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이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피해에 더 노출될 확률이 높았고, 사이버불링 피해를 많이 당한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 가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 5와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이버불링피해변인은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을, 사이버불링가해변인은 사이버불링피해경험을 가장 잘 예측하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성동규 외, 2006; 이성대 외, 2013; Accordino & Accordino, 2011)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이버불링피해와 가해경험 간의 높은 관련성을 입증하고 있다. 즉 사이버공간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현상이 물리적 폭력이나 따돌림과 마찬가지로 일어

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폭력의 경우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은 부분적으로 중첩돼 있으며 상호 관련을 지닌 것으로 드러나 가해자의 일부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피해자의 일부가 가해자가 되는 특성이 발견됐다(박순진, 200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8가지 소셜미디어를 교량형/결속형 네트워크구조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미니홈피, 미투데이,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결속형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고 동시에 사이버불링 가해행위를 할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블로그나 트위터 등 교량형 매체보다는 결속형 매체에서 사이버불링이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다시말해, 친한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고 가벼운 일상을 공유하는 매체일수록 사이버불링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는 네트워크의 구조나 특성에 따라 사이버불링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즉 관계 맺기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소통구조를 가진 소셜미디어보다는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 및 확장이 용이한 소셜미디어가 사이버불링에 취약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교량형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불링피해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트위터나 블로그 같은 매체에서도 사이버불링을 당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았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매우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대로라면 교량적 소셜미디어보다 결속적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카카오톡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앞의 서론에서 소개한 몇 가지 국내의 사이버불링 피해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최근 사이버불링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극단적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2012년 3월 학교폭력 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이버따돌림이 처음으로 학교폭력의 한 유형에 포함되었다⁴⁾.

4) 이 법에 따르면,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하지만 아직까지 청소년교육 등 후속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일선 학교에서 사이버따돌림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이버따돌림을 당했을 경우 증거자료를 어떻게 모아놓아야 하는지, 피해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예방방안이나 처벌규정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이창호 외, 2012). 따라서, 사이버따돌림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 뿐 아니라 사이버따돌림을 당했을 경우 기초적인 대응방안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이버불링도 돈을 빼앗거나 강제로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교사나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사이버불링연구센터의 노력은 우리사회가 참고할만하다. 이 센터는 사이버불링에 대응하는 10가지 팁⁵⁾을 제시하면서 청소년층 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경찰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 근절방안 및 대응요령을 교육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최근 사이버불링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몇 년전부터 사이버불링이 심각한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2011년 1월 한 여학생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동료 여학생들의 집단적인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면서 불링 관련 법률과 별개로 사이버불링을 따로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미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임상수, 2011). 미국의 사이버불링연구소(Cyberbullying Research Center)에 의하면, 2012년 6월 현재 미국 50개 중 49개 주가 따돌림과 관련된 법안을 가지고 있고 전체 50개주 가운데 14개 주(캘리포니아, 하와이, 오리건주 등)는 사이버불링에 관한 내용을 따돌림법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사이버불링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지고 있다. 가령, 하와이주의 경우 자녀가 불링이나 사이버불링을 저지르게 되면, 그 자녀와 부모는 10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이처럼 미국은 사이버불링에도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매우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불링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사이버불링에 대한 구체적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앞서 살핀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초 학교폭력실태조사를 대규모로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 물리적 폭력이나 따돌림에 초점을 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이

5) 10가지 팁은 다음과 같다. ① 사이버불링에 관해 누군가와 대화하라. ② 괴롭히는 자들을 무시하라. ③ 결코 복수하지 마라. ④ 당신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당장 멈추라고 말하라. ⑤ 웃어라. ⑥ 불링에 관한 모든 증거를 모아라. ⑦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라. ⑧ 피해사실을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알려라. ⑨ 결코 따돌림에 관한 메시지를 남에게 보내지 말라. ⑩ 경찰에게 연락하라. (출처: 사이버불링연구센터 홈페이지(www.cyberbullying.us)서 재구성함).

버블링의 실태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이버불링이 심각한 청소년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사이버불링의 유형이나 원인 등에 대한 전국적인 대규모 조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언론학회(2013)가 최근 초, 중학교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 가량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이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주중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인 가장 많았고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등의 채팅과 게임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이 확산되고 카카오톡을 통한 채팅이용이 늘면서 사이버불링의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사이버불링이 낯선 현상이지만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의 확산속도에 비춰볼 때 우리도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다.

본 연구는 최근 중요한 청소년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불링의 실태를 대규모 조사를 통해 파악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소셜미디어의 네트워크 특성에 따라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 하지만, 사이버불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학교생활만족도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애착 등의 변인을 사용해 사이버불링의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사이버불링피해 및 가해 경험을 유무에 따라 측정된 나머지 그 정도를 측정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불링과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따돌림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과제다. 즉 온라인 상에서의 따돌림 경험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따돌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외국의 연구결과가 과연 국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를 매개해 일어나는 사이버불링에 초점을 뒀지만 사이버불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동영상, 이메일 등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통해 발생하는 따돌림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상민, 황보환, 지용구 (2010).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사회적 자본: 한국과 중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5(1), 103-118.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년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결과 중간발표 보도자료**.
- 김경은, 윤희미 (2012).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관련된 생태체계변인의 영향. **청소년 복지연구**, 14(1), 213-238.
- 김경은, 최은희 (2012).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259-283.
- 김대권 (2006). 사이버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인터넷을 사용하는 20대 남녀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2(2), 145-174.
- 김성태, 김여진, 최홍규, 김형지 (2011).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채널의 확장과 정치참여 변화연구. **평화연구**, 봄호, 5-38.
- 남재성, 장정현 (2011).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청소년 비행요인과 지역사회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7(3), 101-119.
- 동아일보 (2012. 3. 12). 카카오톡, 가입자수 4,200만명 돌파. <http://news.naver.com> 에서 2013년 6월 10일 인출.
- 박순진 (2009). 청소년 폭력에 있어서 피해-가해 경험의 발전. **형사정책연구**, 20(1), 71-94.
- 서울신문 (2012. 4. 10). '사이버 불링'에 피멍드는 청소년. <http://www.seoul.co.kr> 에서 2013년 1월 31일 인출.
- 성동규, 김도희, 이윤석, 임성원 (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성향·사이버폭력 피해경험·윤리의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 79-129.
- 송경재 (2011). 소셜네트워크 세대의 정치참여. **한국과 국제정치**, 27(2), 57-88.
- 심홍진, 황유선 (2010).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와 사회자본: 트위터 초기사용자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5), 327-347.
- 안재민 (2009). 미국 및 국내 트위터 이용 현황. **방송통신정책**, 21(20), 60-66.
- 여성가족부, 한국언론학회 (2013). **청소년의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문화조성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오은정 (2010).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실태 조사. **청소년과 효문화**, 15, 219-243.
- 유상미, 김미량 (2011). 사이버폭력의 원인에 대한 구조모델의 제시와 검증. **한국컴퓨터 교육학회 논문지**, 14(1), 23-33.
- 이광수, 조연아, 김성일 (2009). 무선인터넷 시장 견인의 기대주, 트위터. **DIGIECO FOCUS**. 서울: KT경제경영연구소.
- 이성대, 황순금, 염동문 (2013). 사이버불링의 인식 및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령군 중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3, 120-143.
- 이인태 (2012). 초등학교 학생의 사이버 불링 실태와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 경기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2, 91-118.
- 이창호, 김은국, 최영재 (2012). **소셜미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서울: 한누리미디어.
- 이창호, 성윤숙, 정낙원 (201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이용실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임상수 (2011). 사이버불링에 대한 윤리교육의 대응. **윤리연구**, 81, 291-315.
- 조희정 (2012). 청소년사이버불링의 현황과 대책. **이슈와 논점**, 457.
- 천지일보 (2012. 8. 19). 손 안에서 이뤄지는 폭력 ‘사이버불링’ 피해 심각. <http://www.newscj.com> 에서 2013년 1월 31일 인출.
- 최영, 박성현 (2011). 소셜미디어이용동기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5(2), 241-276.
- 통계청 (2011). **한국의 사회동향 2011**. 대전: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 (2011). **2011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소리없는 폭력, 사이버왕따 진단과 해법” 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Accordino, D. B., & Accordino, D. B. M. P. (2011). An exploratory study of face-to-face and cyberbullying in sixth grade students. *American Secondary Education*, 40(1), 14-30.
- boyd, d., & Ellison, N. B. (2008).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 210-230.
- Cohen, L. E., &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8.

- Cohen, L. E., Kluegel, J. R., & Land, K. C. (1981). Social inequality and predatory criminal victimization: An exposition and test of a formal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505-524.
- Debatin, B., Lovejoy, J. P., Horn, A., & Hughes, B. N. (2009). Facebook and online privacy: Attitudes, behaviors, and unintended consequenc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5*, 83-108.
- Dehue, F., Bolman, C., & Vollink, T. (2008). Cyberbullying: Youngsters' experiences and parental percep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11*(2), 217-223.
- Kushin, M. J., & Yamamoto, M. (2010). Did social media really matter?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media and political decision making in the 2008 election.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3*(5), 608-630.
- Li, Q. (2010). Cyberbullying in high schools: A study of students' behaviors and beliefs about this new phenomenon.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9*, 372-392.
- Parris, Leandra., Varjas, K., Meyers, J., & Cutts, H. (2012).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coping with cyberbullying. *Youth & Society*, *44*(2), 284-306.
- Patchin, J. W., & Hinduja, S. (2011).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bullying among youth: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Youth & Society*, *43*(2), 727-751.
- Smith, P. K., Mahdavi, J., Carvalho, M., Fisher, S., Russell, S., & Tippett, N. (2008). Cyberbullying: Its nature and impact in secondary school pupils.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4), 376-385.
- Valenzuela, S., Park, N., & Kee, K. F. (2009). Is there social capital in a social network site?: Facebook use and college students' life satisfaction, trust,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4*, 857-901.
- Vitak, J., Zube, P., Smock, A., Carr, C. T., Ellison, N., & Lampe, C. (2011). It's complicated: Facebook Users'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2008 electio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1), 107-114.

Zuniga, H. J., Jung, N., & Valenzuela (2012). social media use for news and individuals' social capital, civic engagemen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7(3), 319-336.

ABSTRACT

An exploration of the impact of social media use on cyber bullying by youth : A focus on network characteristics

Lee, Changho* · Lee, Kyeongsang*

Recently, cyber bullying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but there have been relatively few studies on this issue.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dealing with cyber bullies or the victims of cyber bullying in the context of social media.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xtent of both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of cyber bullying by conducting a survey on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it analyzed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media on cyber bullying. This paper also suggested several policy measures to prevent cyber bullying. The results of the survey revealed that boys are both more engaged in cyber bullying and victimized by it than girls. The extent of the use of closed social media such as Kakaotalk and Facebook focused on the relations affected by cyber bullying and victims positively. On the contrary, the extent of the use of bridging social media such as Blogs or Twitter did not have an effect on the experiences of victims, but on cyber bullying. This result suggests that cyber bullying often occurs within those forms of social media whose features are related to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relationships. Regarding measures to prevent cyber bullying, this study suggests that education on cyber bullying, how to confront it when it occurs, punishments for cyber bullies, and conducting survey on cyber bullying experiences are all necessary.

Key Words : cyber bullying, social media, SNS, network characteristics

투고일 : 2013. 6. 10, 심사일 : 2013. 8. 1, 심사완료일 : 2013. 8. 12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